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국인들, “인플레 둔화 불구, 물가는 높다”
- FRB NY: 미국인 전체 크레딧 카드 부채 1조달러 상회
- Bloomberg: 미 모기지 7% 돌파... 신용 등급 강등과 국채 매각 후에
- WSJ: 미국인들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용 커진다

[미국 금융]

- WSJ: 채권 시장을 보면 은행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에너지]

- Bloomberg: 오일 연중 최고치 경신... 우크라이나 분쟁 격화 가능성
- WSJ: 전기 요금 인하 가능성 높지만, 예전만큼 아니다

[미중 관계]

- WSJ: 미국, 중국에 사모 펀드/벤처 캐피탈 투자 금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업체들 “소매 범죄 증가 불구 확인 방법 어려워”
- Bloomberg: WeWork 폐업할 수도... 심각한 우려 제기
- Bloomberg: Sony “2024년 돼서야 스마트폰 시장 반등 가능성”
- Bloomberg: Nikon, 글로벌 칩 전망 악화로 매출 최저치
- TechCrunch: Lyft “급등하는 요금 없애고 싶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Inflation Is Cooling, But Prices Are High and Americans Feel It

미국인들, “인플레 둔화 불구, 물가는 높다”

- 요지: 물가 상승세는 꺾이고 있지만 상품 가격은 여전히 높다. 예를 들면, 같은 쇠고기와 감자 칩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비싸다.
- 물가가 진정되고 있다는 말이 많지만 실제 물가가 저렴해 졌다는 것은 피부가 느껴지지 않는다. 물가가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일반 미국인들의 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예정보다 비싸 보이고, 완전한 인플레가 일어나기 까지 이런 경험을 바꾸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물가지수는 주로 식료품과 음료를 말하지만, CPI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플레를 보여준다.
- 같은 쇠고기와 감자 칩은 팬데믹 이전 보다 비싸고, 휘발류가와 전기료 등 다양한 필수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 내일 발표되는 CPI 수치는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전보다 3.3% 상승하고, 전월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2년만에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9.1%로 최고치로 40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Bloomberg 기사

NY FED: America's Credit Card Bill: \$1 Trillion 미국인 전체 크레딧 카드 부채 1조달러 상회

- 1조달러를 돌파한 시기는 올해 2분기다.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소비자 지출이 증가한 것을 말한다. 뉴욕연방은행에 따르면 4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잔고 부채가 4백50억불 증가한 1조 3천억달러로 나타났다.
- 이번 부채 증가는 연체율 증가를 말하지만, 다행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뉴욕연방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소비자들은 팬데믹과 그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견디어 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연체율 증가는 일부 대출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올 가을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황이 이뤄지면서 대출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FRB NY 기사

Bloomberg: US Mortgage Rates Top 7% as Fitch Cut Added to Treasury Selloff 미 모기지 7% 돌파... 신용 등급 강등과 국채 매각 후에

- 미 모기지 금리는 Fitch가 미 신용등급을 낮춘 후에 국채 금리가 급등한 한 주 동안 7%를 넘어섰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Mortgage Bankers Association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계약 금리는 8월 4일로 끝난 주에 16베이시스 포인트 오늘 7.0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주택 구입 신청 건수를 2월 이후 최저치로 끌어내린 이유가 되었다.
- 모기지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벤치마킹하는데, 지난주 Fitch가 미국 국채의 최고 등급인 AAA를 AA+로 강등한 후에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보였다.
- 국채 경매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차입 비용도 늘었다.

Bloomberg 기사

WSJ: Where to Find a \$4-an-Hour Math Tutor With a Ph.D.? Overseas

미국인들 해외 디지털 서비스 사용 커진다

- 미국은 오랫동안 서비스 수출의 리더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할리우드 영화, 심지어 미국 리조트와 식당에도 외국인 소비가 많았다. 그러나 디지털로 제공하는 미국 수출의 글로벌 수출 점유율은 2019년 17.4%에서 지난해 16.5%였다. 이제는 아일랜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커졌다.
- 심지어 예를 들면 미국인은 자녀를 위한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로 파키스탄 박사 소지자로부터 시간당 4불만 지불하면 된다.
- 물론 해외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단점으로 언어적 차이, 데이터 보호, 세금 준수 문제, 관련 규정 등 부담이 있다. 그러나 예컨대 일부 부모들의 경우 혜택은 공급이 적은 노동시장에서 자격을 갖춘 피고용자를 얻을 수 있다. 더우기 새로운 해외 서비스 이용 때문에 미국인에게 관련된 국내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는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개인은 물론 소기업 기업도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할 수 있다. 국내 회계사 부족으로 감사, 세금 신고서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 여행용 의류 회사인Scottevest는 우크라이나에서 코딩과 그래픽 디자이너, 알바니아와 마케도니아에서 고객 서비스 담당자, 인도에서 주문처리 직원을 원격으로 고용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WSJ: Banks' Problems Aren't Over, According to the Bond Market 채권 시장을 보면 은행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어제 월요일 신용평가사Moody's Investors Service는 10개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과 다른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검토 또는 부정적인 전망을 주는 등 전체 27개 은행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 무디스의 은행 등급 강등은 은행 채권이 주식에 비해 더 불안한 점을 말하고 있다.
- 은행은 예금 외에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하다. 원격 근무로 전환된데 따른 예금 비용 상승과 상업용 부동산 및 건설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들수 있다.
- 투자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리스크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기 금리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Hits Fresh High for the Year on Simmering Black Sea Risks

오일 연중 최고치 경신... 우크라이나 분쟁 격화 가능성

-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 격화될 경우 공급이 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거의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 서부 텍사스 중질유 선물가는 배럴당 83달러 이상으로 거래되며 지난 4월에 세운 연중 최고치를 상회했다.
-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OPEC+ 산유국이 우리 해역을 막는 조치를 막기 위해 보복하겠다”고 말한 후 흑해로 부터 러시아 원유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 이 발언은 지난 주말 유조선에 대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에 나온 것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흑해 지역 갈등으로 부터 러시아 원유의 선적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다”며 중국 경제가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강세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loomberg 기사

WSJ: Your Electric Bill Is Likely Headed Lower, Just Not as Low as Before

전기 요금 인하 가능성 높지만, 예전만큼 아니다

- 3년 간의 전기 요금 상승이 끝날 수도 있다. 연료 가격 하락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적 차이와 변동스러운 날씨로 이전만큼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 미국 전력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천연 가스와 석탄 가격 하락이 이제 막 요금 납부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 저렴한 연료로 가을까지 평균 전기 요금이 3~4%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 요금은 계절, 지역, 날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보스턴은 지난 한 해 동안 23% 인상된 킬로와트시(kilowatt-hour)당 32센트를 기록했다. 뉴욕시와 피닉스 요금은 각각 킬로와트시당 25센트와 16센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WSJ 기사

[미중 계]

WSJ: U.S. to Ban Some Investments in China

미국, 중국에 사모 펀드/벤처 캐피탈 투자 금지

- 바이든 행정부가 곧 발표할 행정 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투자를 금지하게 되며, 중국의 군사

최첨단 기술 개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확대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행정 명령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인공지능의 세 가지 기술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 금지를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행정명령은 이러한 기술의 일부 형태(in some forms of those technologies)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한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인은 세 가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에 더 광범위하게 알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BC: Retailers are blaming organized theft for lower profits — but it's a hard claim to prove

업체들 “소매 범죄 증가 불구 확인 방법 어려워”

- 많은 업체들이 수익 감소의 원인으로 범죄를 꼽았다.
- 하지만 도난 당한 상품이 수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집계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이런 주장을 확인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 Target, Dollar General, Foot Locker, Ulta를 포함한 12개 이상의 소매업체가 5~6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수익 전망을 낮추거나 마진 감소의 이유로 소매점 도난을 꼽았다.
- 도난은 큰 문제지만, 소매업체의 주장을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기업은 도난으로 인한 손실을 공개할 의무가 없으며,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이다.

CNBC 기사

Bloomberg: WeWork's 'Substantial Doubt' About Its Future Marks a Stunning Fall

WeWork 폐업할 수도... 심각한 우려 제기

- 위워크는 현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 이 회사는 현재 현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사무실 임대 고객들이 멤버십을 무더기로 해지하고 있다. 이번주 수요일 아침 거래에서 주가는 26% 하락했다.
- 위워크의 주가는 2021년 10월 상장 이후 98% 폭락해 현재 시장 가치가 약 90억 불에 달한다. 채권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에 만기가 끝나는 이 회사의 무담보 채권은 달러당 33.5센트에 거래 되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ony Hikes Outlook as Games Help Offset Smartphone Weakness

Sony “2024년 돼서야 스마트폰 시장 반등 가능성”

- 스마트폰용 카메라 센서의 주요 공급업체인 소니에 따르면 스마트폰 시장이 빠르면 2024년에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미국의 수요 감소 때문이다.
- 이 회사는 스마트폰 시장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업계 전반 침체로 인해 수십 년 만에 가장 긴 판매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스마트폰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미국 시장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재무 담당 수석 총괄 매니저인 Sadahiko Hayakawa이 말했다.
- 그는 “우리는 이번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만, 지금은 적어도 내년까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ikon Dives Most on Record as Global Chip Outlook Darkens

Nikon, 글로벌 칩 전망 악화로 매출 최저치

- 니콘이 6월로 끝나는 분기 순이익이 78% 감소했다고 밝힌 다음 날에 주가가 도쿄에서 21% 폭락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
- 이 회사는 정밀 장비 부문의 연간 수익 전망을 20% 낮췄다. 니콘은 6월 분기에 총 4대의 리소그래피(lithography) 장비를 출시했다. 이는 지난해의 8대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
- 하지만 미러리스(mirrorless) 카메라에 대한 높은 수요와 공급망 문제 완화 덕분에 연간 매출 전망치를 컨센서스(consensus)보다 상향 조정하고, 수익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 글로벌 칩 업계는 개인용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 최대 칩 제조업체인 TSMC는 7월에 연간 매출 전망을 낮췄다. GlobalFoundries도 이번 분기에 미지근한 매출 가이드를 발표했다.

Bloomberg 기사

TechCrunch: Lyft wants to kill surge pricing

Lyft “급등하는 요금 없애고 싶다”

- 리프트는 이번주 화요일 탑승자수는 증가했지만, 승객당 수익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시장에 맞춰 가격을 책정”하는 회사의 방식 때문이다.

- 리프트는 거리에 따라서만 가격이 책정되는 우버와 달리, 거리와 시간대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우버보다 싼 장점이 있지만, 바쁜 시간에는 우버보다 비싼 단점이 있는 것.
- 리프트의 탑승 횟수당 수익은 전분기 대비 거의 5% 감소한 반면, 탑승객 수는 1분기의 19,552명에서 2분기에 21,487명으로 증가했다.
- 이는 급등 요금에 우버보다 저렴할 때는 수요가 많아 라이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우버보다 비쌀 때는 수요 억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리프트는 우버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사에서 '프라임타임'으로 부르는 가격 급등 현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무디스 은행 등급 강등에 은행주 중심 미국 증시 하락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일부 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미국 은행업계와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8일 (현지시간) 일제히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45% 하락한 35,314.4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2% 내린 4,499.38, 나스닥 종합지수는 0.79% 하락한 13,884.32로 각각 장을 마쳤다.

이 같은 하락세는 무디스가 미 중소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한단계씩 낮추고 BNY 멜론과 US뱅크, 스테이트스트리트, 트루리스트 파이낸셜 등 6개 대형은행을 강등 검토 대상에 올린 영향으로 분석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